

‘페이퍼리스’ 훈풍 타고 포시에스號 글로벌 순항중



최종희 choijh@ 성장기업부 기자

日 유치원협회와 사업 추진 SC은행 시스템 제공도 확대

패키지·클라우드 두 전략 활용 초기비용 부담 줄여 中企 공략



포시에스의 모바일 전자계약 시스템 e컨트랙트(eContract).

포시에스가 해외 영토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일본 유치원협회와 페이퍼리스 사업을 추진 중이다. 1차 추진 대상은 유치원 400곳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교사들은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실시간 보고서 작성이 가능하다. 사진, 서명 등 다양한 입력 컴포넌트를 활용할 수도 있다. 일본 정부는 오는 4월부터 유치원·보육원이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면 예산 75%를 지원한다. 포시에스는 이를 기회로 삼아 일본 전역에 진출할 목표다.

동남아시아 사업도 활력을 띄고 있다. 은행 페이퍼리스 창구 시스템, 찾아가는 은행 서비스 등 전자문서 솔루션이 필수적이다. 보험사를 상대로 모바일 전자청약 시스템을 공급할 방침이다. 이 시스템은 보험상품 계약서를 전자문서로 전환해 모바일 단말기만으로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

포시에스는 이미 싱가포르 지사를 통해 태국 대형 시스템통합(SI) 업체와 손잡았다. 인도네시아에서도 금융 특화 SI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동남아시아 성과가 구체화되면 유럽시장 공략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포시에스는 지난해 해외 성공사례를 잇따라 썼다. 글로벌 SC은행 10개국에 찾아가는 뱅킹 시스템을 제공했다. 당시 시스템은 올해까지 아시아,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지역 18개 지사로 확산된다. 매출 기준 몽골 2위 통신사 유니텔(Unitel)에도 모바일 전자계약 시스템 ‘e컨트랙트(eContract)’를 넣었다. 종이 계약서 대신 태블릿 PC로 상품 판매를 가능케 했다.

최근에는 일본에서 성과가 두드러진다. 전국 레스토랑 체인을 보유한 일본 회사에 전자문서

솔루션을 공급했다. 손 씻기, 냉장고 온도 체크, 종업원 근태, 주방설비, 식자재 등에 대한 다양한 보고서를 전자문서로 바꾸는 솔루션이다. 일본 대형 세탁 체인 백양사(白洋舎)의 전표 페이퍼리스 프로젝트도 수주했다.

싱가포르에서는 화물운송·창고관리 업체 BHS 키네틱(Kinetic)에 모바일 기반 전자문서 프로젝트를 따냈다. 중국 최대 ERP 벤더 용유 소프트웨어(用友)와의 협력으로 이뤄냈다. 두 회사는 앞으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페이퍼리스는 종이로 된 문서가 아닌 전자문서를 쓴다는 의미다. 포시에스는 전자문서 개발·조립, 출력 솔루션을 갖고 있다. 주력 제품은 기업용 리포팅 솔루션 ‘오즈 리포트(OZ Report)’, 전자문서 개발 솔루션 ‘오즈 이폼(OZ e-Form)’, 기업 워리와 리포팅 솔루션 ‘오즈 이큐(OZ EQ)’ 등이다.

박미경 포시에스대표는 “국내에 안주하지 않고 해외 매출 성장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패키지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서비스 두 가지 전략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과 싱가포르를 1차 타겟으로 스마트 전자문서 시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며 “초기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대한 부담을 줄여 중소기업에도 인기가 높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茶談:with 판교밸리 CEO

장준호 인포뱅크 대표

“미래 먹거리 ‘투트랙’으로 준비”

車인포테인먼트 플랫폼 개발 밖으로 스타트업 투자서 찾아



그래서 선택한 것이 스펀오프와 스타트업이다. 모바일 게임 회사 컴투스 투자도 스타트업 투자로 눈을 돌린 이유가 운데 하나다. 컴투스 창업 초기 회사에 투자

“인포뱅크는 차량 인포테인먼트와 스타트업 투자로 미래를 준비합니다.”

장준호 인포뱅크 대표는 미래 먹거리를 두 갈래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사내에선 차량 인포테인먼트 플랫폼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회사 바깥에선 스타트업에서 찾는다.

인포뱅크는 기업용 단문메시지서비스(SMS) 전문기업이다. 한해 매출만 1000억원에 이른다.

1995년 창업해 꾸준히 성장세를 탔다. 장준호 대표는 박대형 대표와 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했다. 두 대표는 서울대 동문으로 창업 후 20년 넘게 회사를 꾸리고 있다. 박 대표가 경영을 총괄하고 장 대표가 전략을 맡고 있다.

회사 내 전략을 맡은 장 대표는 최근 스타트업 투자 전도사로 더 유명세를 타고 있다.

인포뱅크가 최근 2년간 40여개 기업을 투자하는 데도 장 대표 역할이 컸다. 특히 컨설팅을 하면서 10개사 지분을 취득했고, 특허컨설팅과 지분 투자를 같이 하기도 했다. 20개사는 작은 규모 벤처캐피탈(VC)과 공동 투자했다. 스타트업으로선 자금과 경영 지원을 받고 인포뱅크로선 미래에 투자하는 상생 구조다.

스타트업 투자로 눈을 돌린 데는 이유가 있다. 장 대표는 “신규 사업을 여러 차례 해봤지만 모두 성과를 못봤다”고 말했다. 그는 원인으로 기업이 정신이 사내에서 만들어지기 어려운 점을 꼽았다.

그는 “직원이 재주가 있어도 잘 발휘되지 않고 변화와 위기가 찾아올 때 시장 흐름에 맞는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했고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컴투스는 대형 기업으로 성장하며 과실을 맛봤다.

새로 시작한 스타트업 투자는 일단 성공적이다. 창업 초기 투자했던 질량분석기 업체 아스타가 연내 상장 가능성이 커졌다. 아스타는 단백질 질량분석기를 국내 최초로 개발한 업체다. 질량분석기를 만드는 곳은 독일, 영국, 일본, 미국 4개국에만 있다. 단백질 라이브러리를 갖춘 곳은 세계 질량분석기 시장 70%를 장악한 독일 부르크 정도에 불과하다. 아스타는 질량분석기 개발과 함께 세균 라이브러리를 갖춰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다.

장 대표는 “눈앞 이익을 좇아 기업에 투자한 것은 아니지만 성장과 함께 인포뱅크 가치도 커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인포뱅크 내부 미래는 자동차 서비스 시장에 초점을 맞췄다. 차량 내에서 즐길거리와 업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 중이다. 장 대표는 “자율주행차 시대가 되면 탑승자는 차 안에서 운전이 신경쓰이지 않고 쇼핑이나 엔터테인먼트, 업무 등 작업을 하게 된다”면서 “이 시대를 대비해 카 인포테인먼트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민 성장기업부(판교)기자 kmlee@etnews.com

범용 행위기반탐지

원양어선의 튼튼한 그물이라고 해도 작지만 치명적인 피라냐까지 “잡을 수는 없습니다”

1 트래픽 분류

수신이메일 자체판단 행위분석시스템과 연동

2 발신이력추적

메일 발신 이력을 관리/분석 이상발신메일 차단

3 중복검사방지

동일한 형태의 메일에 대한 중복검사방지

4 PDF 변환

수신이메일을 PDF로 변환 메일 내 위혐요소 제거

SmashAPT 이메일 APT / 랜섬웨어 차단 솔루션

대표번호 02-6947-7872
기술지원 02-6947-7877

(주)이월리서치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로 131 B동 10층 1004호(가산동, 비와이비하이시티)
E-mail) contact@ewall.co.kr Fax) 02-6947-7871

서울시, G밸리 개조작업 착수

개발계획 수립 용역 사업자 선정 지원시설 늘리고 난개발도 해결

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 뜯어 고치는 작업이 시작됐다. G밸리가 구로공단에서 첨단지식산업센터로 전환하면서 한계 상황을 맞은 탓이다. G밸리는 생산성이 높고 정보기술(IT)을 포함한 지식산업 증가를 통한 둔화세다. 건물임대 사업자만 늘면서 기업 가동률은 바닥을 찍었다.

서울시는 G밸리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수립 용역 사업자로 미래이엔디와 인토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이번 용역은 G밸리 내 부족했던 지원시설을 늘리고 난립했던 입주 기업을 재배치해 특화산업단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다. 사업비는 11억원이다.

컨소시엄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한 산업단지 실시계획을 수립한다. 총괄계획가(MP) 선정과 자문단 구성도 마쳤다. 자문단은 월 1회 운영된다. 컨소시엄은 2018년 7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2012년 7월 정부 주도로 개발 계획은 수립됐으나 실시계획은 만들지 않았다.

이번 용역은 종합 실시계획이다. 시행령에 고시 형태로 명시돼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도로와 배수, 상수도, 조경까지 모두 재배치한다. 서울시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형도면 고시까지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G밸리 경쟁력을 강화할 도시계획 관

리 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산업단지 전체를 포괄하는 체계 없이 필지별로 건축법 적용을 받아 난개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생산성 하락과 지원시설 부족, 임대사업자 증가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G밸리 내 생산액은 2013년 1조7212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5년 1조2868억원으로 떨어졌다. 2년 사이에 4000억원 이상 급감했다. IT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 부진과 임대사업자가 증가해서다.

G밸리 재개발 프로젝트 핵심은 지원시설 용지 비율 확대다.

현재 G밸리 내 지원시설 용지 비율은 약 9.8%에 불과하다.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24.5%)와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21.8%) 등 최근 조성된 산업에 비해 부족하다. G밸리 지원시설에는 도로를 비롯해 아웃렛 매장도 포함돼 있어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느껴진다.

서울시는 주거·문화·복지·여가 시설도 늘릴 계획이다. 공원녹지도 추가 확보기로 했다. 단지 여건상 대규모 녹지를 새로 조성하기보다 기존 시설이나 하천변 공간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G밸리 준공 이후 주변여건과 산업환경 변화를 고려해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산업환경을 조성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유창선 성장기업부(구로/성수/인천) 기자 yuda@etnews.com

아드반테스트, 반도체장비테스터 개발자회의 개최

아드반테스트는 2회에 걸쳐 반도체장비테스터 개발자회의 ‘보이스(VOICE) 2017’을 연다고 15일 밝혔다.

1차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팜스프링스에서 오는 5월 16일과 17일 이틀간 열린다. 2차는 중국 상하이에서 5월 26일 개최된다. 20주년을 맞이한 VOICE 2017의 주제는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된 세상(Connected World and Everything in it)”이다. 주제를 중심으로 한 기술 프레젠테이션, 파트너 설명회, 네트워킹 시간이 마련된다.

팜스프링스에서 열리는 VOICE 2017에는 전

직 FBI 특수 요원 크리스 타벨이 사이버 보안에 대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애니 레몬 NXP 기술엔지니어는 “지난 10년 동안 보이스는 규모와 질적으로 성장해 반도체 테스트 기술 콘퍼런스 중 최대 행사가 됐다”면서 “아드반테스트의 최신 사용자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소프트웨어와 장비에 대한 지식과 통찰력을 얻는 기회”라고 말했다.

참가신청은 홈페이지(https://voice.advantest.com/register)를 이용하면 된다.

이경민 성장기업부(판교)기자 kmlee@etnews.com